

시편 8편 1-9절

우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 하나님의 사랑

**한줄요약**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창조물은? 광대한 우주? NO, 지극히 작은 인간? Yse

**도입**

보통 굉장한 물건을 판매할 때 한정판으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있고 매니아는 물론 일반 사람들도 한정된 물건이 굉장한 물건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수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님 보시기에 프리미엄이 붙은 창조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 달? 별?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우주? 이 하나하나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창조물은 이런 프리미엄이 붙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1) 하나님의 영광**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기는 언제인진 모르나 다윗의 시점에서 보자면 어느날 다윗이 밤하늘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며 감동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본 하늘은 그랜드 캐니언이나 휴양지의 엄청난 자연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있다.” 또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생각하면 온 세상 속에서 다윗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또 새와 바다, 물고기를 보며 그 자체에 전율을 느끼며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경배합니다. 죄인의 눈에는 그 보이는 것이, 아는 것이 그 정도 까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던 다윗은 하늘을 보며 주의 영광이 덮힘에 전율하며 그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전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창조물들이 누굴위해 만들었는지 이미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보잘 것 없을까요? 그럼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돌보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놀랄 수 밖에 없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광활한 세상 만물을 다스릴 지배자로 세우셨으니 인간은 만물의 지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허락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시편의 고백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뚜렷하게 보이는 삶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런 삶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습니다. 광활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름다운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11

무엇이 중요합니까?

안식일 논쟁 / 섬김의 주인

한줄요약

중요한 것은 섬기는 내가 아니라 섬기는 대상이다.

## 도입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섬기는 당사자는 남을 위해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그 섬기는 내용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 경험에서 좋아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실수입니다.

이런 섬김은 그 대상을 당혹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상당히 불쾌하고 피해다니게 합니다. 의도야 어쨌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섬김은 그야말로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 1) 안식일 논쟁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배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항변이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항변에 대해 다윗의 예를 들어 답하심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답변으로 안식일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답변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권위의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지 규정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하시려는 것이었죠.

이후 또 다시 이런 논쟁에 휘말리셨는데 이번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이전 밀, 이삭 안식일 논쟁에서는 말씀으로 자신이 주인이심을 밝히셨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권위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이후의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서 권위를 보이시며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소할 근거를 찾을 요량으로 소위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안식일 규정에 대해 논하셨다면 소 귀에 경읽기 밖에 되지 않기에 예수님은 그 말대로 안식일에 대해 그에 관련해서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누가 밝힐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2) 섬김의 주인

말씀대로 안식일의 주인되신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선행과 악행, 구원과 멸망의 개념을 질문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있는 것인가, 생명을 멸하기 위해 있는 것인가?> 좀 더 나아가서 <율법이 선을 위해 있는 것인가, 악을 위해 있는 것인가?, 구원을 위해 있는 것인가. 멸망을 위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자기 입맛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게 만드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선행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치유를 통해 입증하셨으나 그들은 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쯤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권위를 내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남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남을 정죄하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내가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우리 성도님을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37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 진정한 이웃

#### 한줄요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없이 다가오신 것처럼 진정한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와같이 행하여야 한다.

#### 도입

리더십의 유형 중 두 가지 유형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형 리더십과 또 하나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권위주의형 리더십은 리더의 권위와 능력으로 조직을 이끌어간다면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을 통한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역사적으로 전자의 리더십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위주의형 군주는 부하들에게 혹독하게 대하다 부하들의 능력이 자신을 능가할 때 좋지 않은 결과를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부하를 사랑하고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은 자신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부하들이 끝까지 신뢰하고 자신의 가진바 능력을 동원해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1)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며 예수님의 답을 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되물어 율법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는 율법대로 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율법교사는 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과시하기 위해 이웃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제외된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맞아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합니다. 아마 이들이 피한 이유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손대면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걸로 예상하고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피한겁니다. 근데 모두가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며 돌보며 여관의 주인에게 돌보라 이야기 하며 값을 더 지불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민족적, 인종적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타파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교사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웃의 개념을 따져 묻는 율법사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너무도 단순 명료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 예수님의 권위있는 명령은 율법사의 교만과 위선을 꺾어버리는 위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영육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당장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 2) 진정한 이웃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 계산적인 태도로 보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능력을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무의식 속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 율법교사와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이웃은 우리의 명예, 조건, 능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보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조건을 보듯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봤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릴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린만큼 이웃과 함께 누려라 라는 말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진정한 이웃을 찾거든 진정한 이웃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겁니다.

출처: 누가복음 (QA시스템 성경연구 시리즈), 두란노 HOW주석 36\_누가복음\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누가복음 19장 1-10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리고의 삭개오 / 예수님이 오신 목적

## 한줄요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 도입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환자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니고서는 의사를 찾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뚜렷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로 찾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죄인입니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찾으셨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찾아 치료하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 1) 여리고의 삭개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으로써 당시 유대사회에서 로마의 앞잡이로 죄인으로 지탄받는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비난 받으면서도 할만한 직업이었는데 당시 세리는 권력자들에게 돈을 주고 징수권을 사들였으며 국가가 지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착복하여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야말로 재물 때문에 나라도 민족도 없는 탐욕의 정점에 선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라는 직업의 장이었으니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죄인 중에 과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이야 어떻게 되던 상관없던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싶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그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있음을 알고 삭개오의 집에 묵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삭개오에게 인격적인 초청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 2)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삭개오는 평소엔 자신의 세리장이라는 직책과 정당하지 못한 세금 징수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을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소외된 아픈 심정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자책감으로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부름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어둠 속에 비추어지는 구원의 빛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취급을 받으며 사회에서 지탄받는 위치에 있던 자신을 누구는 선지자라고 누구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또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7절에 사람들의 반응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배척하는 지옥같은 상황으로부터 삭개오 자신을 구원해주는 생생한 용서의 선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전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제물에 눈이 멀어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고 돈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로 찍히면서도 돈을 사랑했던 돈을 자신의 구주이자 우상으로 섬겼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자신을 지배하는 우상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며 말씀을 실천하는 도구의 자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니 이제 삭개오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세리나 죄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일을 보이신 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출처: 누가복음 (QA시스템 성경연구 시리즈), 두란노 HOW주석 36\_누가복음\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